



‘2019 문법의 끝’의 특별한 후기

김 봉 소 (이감 국어 연구소 고문)

잘 알다시피 문법이란 언어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언어학자들이 고안해 낸 개념들의 체계이다. 줄글로 된 책보다는 도식, 도표, 필수적인 예시 등으로 잘 요약된 책으로 익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이유도 문법 공부가 결국은 수많은 개념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일 게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 문법의 개념 체계를 수많은 도식, 도표, 예시로 전달하고 있는 「문법의 끝」은 효율적인 책이다.

한편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언어 현상들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개념들 간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신마저 생기는 순간들이 있다.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게다. 이는 다 효율만을 위해 교재가 지나치게 압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법의 끝」은 효율만을 위해 내용의 충분함을 희생시키지 않았다.

문법 교재는 시장에서 좀 팔리기 때문에 일부 개념들만 정리된 얇은 책들은 많다. 하지만 교과서 문법의 전 개념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책은 드물다. 수험생들이 책장에 하나쯤 꽂아 두고 문법 공부를 할 때마다 꺼내서 참고한다면 참 든든한 책일 것 같다.

2018년 5월 7일 대치동에서.

'2018 수능 1등급 검토진' 의 교재 후기

이 은 경 | 연세대학교 수학과 2018학번

현주쌤 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 6시 30분 수업을 거의 앞자리에서 들었던 학생이에요! 정말 제 기준에서는 열심히 들었는데 아마 제가 낮을 가리고 질문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ㅜㅜ 질 모르실 수도 있을 꺼 같아요ㅠㅠ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쓰게 된 이유는 가채점을 안 적어와서 혹시 실제점이 잘못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기다렸다가 쓰게 되었어요!!

우선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제 글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게 제 상태를 써보자면 작년에는 현강이라는 것을 1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문학+화작은 다 맞고 비문학+문법에서 다 비가 내리는 그런 전형적인 문과문과 한 사람이었습니다ㅜㅜ평가원은 항상 3등급 초-중반을 왔다갔다거렸구요.

제가 현주쌤 강의를 듣기 시작한 것은 6평 바로 끝나고인데요! 그때당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DNS 스푸핑에서 멘탈이 탈탈 털린 후 장지문에 아예 손도 못 대서.....;; 고심끝에 오르비를 돌다가 현주쌤의 글과 후기를 통해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처음 듣고 진심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우선 선생님 강의의 장점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비문학에서의 정보의 위계질서를 알려주신다는 점이에요! 제 문제점은 비문학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를 몰라서 무작정 모든 것을 머리에 다 외우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3학년 교육청까지는 먹히다가 이제 정보가 많은 지문에서는 정작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경향을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현주쌤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면 ~하다 혹은 정의, 결과, 비례-반비례 등에 표시하고, 생략 가능한 내용 예들들어, 구체적인 계산식 등등에는 다른 표시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진심 신세계였습니다..... 정보간의 위계질서가 잡히니까 글을 읽는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매 지문마다 어떤 것에 표시하는지를 알려주셔서 나중 파일널 가서는 약간 지문 읽을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아 근데 진심ㅋㅋㅋ수능장에서 다 생각났어요 오버슈팅 읽을 때 멘붕직전이었었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ㅋㅋㅋ) 경지 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ㅎㅎ

그리고 문학에서는 진짜 도움됐던 거는 사실과 시적상황을 분리하는 것과 항상 문학 강의 들어가시기 전에 칠판에다가 작품들을 보면서 꼭 주목해야할 것을 미리 써주시고 수업하시는데 그것도 문학 작품이 헛갈릴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계속 적으면서 문제 풀었더니 내용이 애매하거나 헛갈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좋은 점은 시험 때 쓸 수 있는 팁?요령? 같은것을 많이 방출해 주십니다! 저는 그냥 요령없이 막 양만 많이 푸는 스타일이라서 선생님의 이런 문제푸는 방법들을 새겨두고 정말 많이 써먹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차이나는 파일널!!! 그 리트+교육청+평가원 문학 비문학 만 모여있는 자료를 과제로 내 주시는데 진심 그거 꼭 푸셔야 돼요ㅜㅜ마지막에 기출정리+실전연습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됐습니다! 운 좋으면 거기에 있는 작품이 수능에 나올지도 몰라요! 예들들어 제가 차이나는 파일널을 풀면서 진짜 와 이 시는 꽤 어려운데? 하는 교육청 문제가 있었는데 나왔어요;;;;; 근데 사실 뭐가 나올지 맞추는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선생님 현장에서 들었던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숙제라 할 수 있어요! 제가 간쓸개는 다 못풀어도 이거는 항상 꼭 풀었습니다!! 진심 리트부터 교육청까지 다 있는데 평가원 문제유형 익숙해지기+비문학 주제연습(간단한 배경지식)+실력향상에 도움 진짜 많이 됐어요ㅠㅠ

+마지막 한가지 더! 문법의 끝 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진짜 시험에 나올꺼 안 나올꺼 모두 담긴책인데 한번 문법을 전체 돌린 사람이 더 깊게 파고들 때 그 책으로 공부하면 진짜 좋습니다! 저 수능 7일 연기 되었을 때 문법을 그 책으로 부족한 것만 다시 들렸더니 시험볼 때 집중적으로 봤던 첨가 부분에서 나와서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한가지 장점을 추가하자면 제가 항상 봤는데 항상 10시 이후에 학생들 질문 받아주시느라 계속 남아계시고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업하시는게 다 느껴졌어요ㅠㅠ 마지막 수업 때 약간 많이 슬펐어요ㅠ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문학을 좋아해서 그런지 선생님이 작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혹은 문학 작품 풀어주실 때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독재하면서 일주일의 낙이 현장 들으러 오는 것일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ㅋㅋㅋ



아무튼 현주쌤 강의는 진심 좋습니다!! 진짜 재수때도 많이 추천했고 지금도 많이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진짜 좋아요^^ 그럼 이만 후기를 끝내겠습니다! 현주쌤 다시 한번 6개월동안 진짜 진짜 너무 재밌고 유익한 수업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TT국어가 효자과목이 될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 예 찬 | 전남대학교 의예과 18학번

저는 지방 사립의대에 진학했다가 제 욕심에 다시 한 번 수능을 치르기로 결심한 학생입니다. 재수 때 수능에서 국어 3등급을 받으며 크게 흔들렸던 저는 국어라는 과목에 있어서의 자존감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어린 시절 외국 생활로 인해 국어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탓인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문법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도 문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시간상의 이유로 문법만을 위한 강의를 해주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문법은 배우기가 무척이나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친구들로부터 추천받은 책이 바로 이 '문법의 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반수를 해서인지 다소 늦은 6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된 저는 늦었지만 일단 천천히 문법 개념부터 잡고가자 라는 생각에서 문법의 끝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법의 끝을 공부하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의 설명이 충실하게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바로 아랫부분에 비치해서 개념을 익힘과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수능 국어에 있어서, 어찌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예외들에 대해 빠짐없이 정리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이 책이라면 문법을 정말 다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장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문법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는 문법의 끝을 충분히 자세히, 또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기출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사실 문법은 한 시험에서 5문제만 나오므로 그 양이 단원별로 파악했을 때는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평가원, 교육청 수록 문제들을 구별해서, 모조리 실어놨기에 제가 익힌 개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제 개인 경험상 문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문법적 지식을 익혀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또 기본이 어느정도 완성이 되어있는 분에게는 자신의 지식을 견고히 해 나가는 콘크리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법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에 이 책을 한 번이 아닌 최소 10번은 가능하다면 더 많이 반복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feat. 유현주 쌤 감사드려요^^

김 서 연 | 고신대학교 의예과 18학번

저는 18수능으로 처음 1등급을 받아본 학생입니다.

6평 때 화법과, 작문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문법 문제에서도 실수를 하고, 뒤이은 독서, 문학에서도 시간에 쫓겨 끝까지 풀지 못했습니다. 국어가 안정적인 등급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던 중 유현주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독서, 문학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선생님께서 현장 강의 학생들에게 나눠주신 '문법의 끝' 교재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한 건 9월쯤이어서 개념은 이미 여러 번 강의로 반복한 후였고, 기출 문제도 2번 정도 풀어 봐서 이 책을 답만 맞추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외의 선지 예시도 꼼꼼히 외워두었습니다. 교육청 문제들 까지 수록되어 있어서 문제의 양도 충분했고, 해설도 상세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자주 읽어서 문법 용어에 대한 부담감이 없앨 수 있었습니다. 유현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

정 소 이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18학번

유현주 선생님의 현장을 수험생활 내내 들었던 학생입니다. 저는 이 책을 산 어느 누구보다 "문법의 끝"이라는 책에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책은 저에게 있어 이번 수능 1등급을 가능케 한 책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제발 후배 여러분이 이 책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2등급도 받아본 적이 없는 3등급, 4등급의 학생이었습니다. 과학과 경제 비문학에서 점수를 많이 놓치는 것이 문제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문법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보어와 관형어, 부사어같은 가장 기본적인 성분조차 모르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문법을 4개 이상 맞아본 적이 없었고, 비문학을 잘 푼다 해도 3등급을 넘길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유현주 선생님이 문법의 끝을 학기 초에 배부해주셨는데, 그 때 차근차근 전부 볼 걸이라는 후회가 정말 많이 듭니다. 저는 문법을 계속 미루다가 9월 모의고사에서 3개를 틀린 후에야 문법을 시작했습니다.

관형어, 부사어조차 뭔지 모르는 제가 수능 당일 문법을 고민 없이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문법의 끝으로 독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책의 앞에 있는 선생님의 비밀(선생님의 귀여운 캐리커처)은 매순간 스스로를 가다듬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복돋아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의 당부의 말을 보고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 능력을 한정짓지 마세요. 그대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수험생활, 자존감은 바닥이고 굴러가는 낙엽조차 미워보이던 제게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그 문장에 핑크색 형광펜으로 마킹까지 해놨습니다 :). 책의 앞 쪽에 나와 있는 문법 개념 구조도를 통해 내가 모르는 것과 어려운 것, 그리고 아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역대 기출문제들을 순서와 색으로 표시해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차근차근 전부, 저처럼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반드시 풀어야하는 문제들만 골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설지도 정답과 근거만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선택지의 오답해설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저처럼 문법을 놓은 지 오래돼서 기본적인 것조차 몰라 문법 문제를 찍거나 감으로 푸는 학생들 있을 겁니다.

"문법의 끝"은 여러분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하기 안성맞춤입니다. 꼭 "문법의 끝" 책을 통해 수능 당일 문법 전부 맞추시고, 저처럼 1등급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제 수능 1등급의 기적을 만들어주신 유현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최 정 은 | 조선대학교 치의예과 18학번

저는 '국어 문법'이라는 영역은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을 공부하며 개념들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최근 평가원에서 문법의 헛갈릴 만한 부분들을 출제하면서 학생들이 정확히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17수능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문법영역 5문제 중 3문제나 틀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반수하면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면서 문법을 깊게 공부했고, 결국 문법문제를 다 맞으면서 국어영역 1등급(95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법을 공부하는 데에 유현주 선생님의 수업과 문법의 끝 교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문법개념공부는 다른 인강교재로 했고 문법의 끝은 8월 말 즈음 알게 되어 문법의 끝을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파이널 현장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는 부분 중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 문법의 끝 교재를 활용해 부분부분 학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었고, 제 인강 교재에 단권화 해 나갔습니다.

문법의 끝은 단원별로 잘 항목화되어 있어 개념들을 찾기가 편했고, 다양한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단권화한 제 개념서는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문법의 끝에 수록된 기출문제들을 풀었는데, 기출문제들이 단원별로 되어있는 점과 색깔별로 문제들이 나뉘어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수능은 빨간색, 평가원모의고사는 파란색, 교육청 모의고사는 초록색으로 나뉘어져 있어 보기가 편했습니다.

처음 풀 때는 쪽 풀면서 단원별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단권화된 개념서의 그 부분을 다시 보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 수능 직전에는 빨간색 수능 기출만 단원별로 풀어보면서 수능스타일을 익혔습니다. 결국 단권화된 개념서를 계속 복습했던 것과 문법의 끝에서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깊고 넘어갔던 것이 문법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문법의 끝을 늦게 접하신 학생들이라도 기출문제들만큼은 꼭 단원별로 풀어보시면서 개념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 남 희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8학번

저는 수능 국어에 매우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ㅎㅎ 개인적으로 수능 국어에서 다른 영역과 문법은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화자, 문법, 문학, 독서 중에서 내용적인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국어 관련 멘토링을 해줄 때 독서나 문학 푸는 실력에 비해, 시험장만가면 성적이 안나온다 하는 학생들은 우선 물어보는 부분이 "문법은 확실하게 해냈니?"입니다.

수능장에서 문법은 확실하게 알면 5문제를 5분 안에 풀고 5문제를 다 맞을 수 있지만, 문법의 개념이 조금이라도 미숙한 학생이라면 5문제를 푸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될 뿐더러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문법 문제를 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재수 시절 문법을 완벽하게 해놓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법을 꼼꼼하게 하고 싶어서 문법을 그냥 무작정 외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유현주 쌤 현강을 수강하게 되어서 선생님이 현강생들에게 나눠주신 문법의 끝을 통해 문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문법의 끝은 일단 책이 굉장히 두꺼워서 학생들이 지레 겁을 먹는 경우도 존재합니다ㅎㅎ.. 그러나 책이 두꺼우면 두꺼운 이유가 다 있는 법이죠, 문법의 끝은 일단 개념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있습니다. 문법 개념을 혼자 자세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문법의 끝은 개념설명이 잘되어서 혼자 문법 공부를 하는 것에 오히려 넘치면 넘치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개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예시가 많이 적혀있어서 개념을 이해하기 수월했습니다ㅎㅎ 그리고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예시도 암기가 되고 예시가 많이 기억나는게 문제풀 때 은근 풀이더라고요..

또한 수능 국어에서 기출분석의 중요성은 오르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너무나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의 끝은 수능, 평가원 문법 문제가 거의 다 수록되어있어서 저는 책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기출분석을 바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문법은 배운걸 적용 시켜야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그런데 수능, 평가원 문법 문제만 있다면 문제 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문법의 끝은 교육청 문제까지 수록되어있어서, 개념을 앞서 잡은 후 평가원 문제들을 통해 기출분석을 하고 교육청 문제들로 양치기까지 할 수 있기에, 수능 문법을 공고하게 하고 싶었던 저는 저 3단계로 공부해서 단권화된 문법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ㅎㅎ

그리고 그 결과 17수능 때 문법 5문제 중에서 3문제 맞추고 시간은 겁나 많이 써서 4등급 맞고 재수한 제가 18수능 문법 5문제 5분컷 하고 수능 국어 1등급 맞고 지금 뱃지달고 있는 대학 합격했습니다ㅎㅎ

윤 현 지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18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9월 추석특강부터 파이널까지 유현주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입니다.

어쩌다 6월 모의고사에서 89점으로 1등급을 받긴 했지만 시험을 잘봐도 왜 잘 봤는지 잘 몰랐고, 기존에 제가 받던 국어 등급은 항상 3등급이었습니다. 마더텅겨 기출을 풀고 채점했을 때에도 대부분 3등급이 떴었구요.... ㅎㅎ

수능이 얼마 안남았는데 9월 모의고사까지 3등급을 받고나니 사실 모의고사를 시간안 에 재서 푸는 연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혼자 공부할 때는 80분 시간을 딱 재놓고 푸는게 힘들었는데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니까 집중력도 높아지고 수능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학습관련 자료들과 수업의 질이 너무나무 좋았고, 저는 특히 문학 해제강의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연계교재 관련 질문도 카톡으로 한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참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나무 감사했습니다ㅠㅠ

이렇게 파이널까지 유현주 선생님과 함께 달린 덕분에 저는 고3 모의고사시절 받았던 가장 좋은 백분위 96을 뛰어넘어 수능에서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려 97점을 받고, 백분위 98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국어에서 1등급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안정적인 1등급까지 이르는 데에 유현주 선생님의 강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제 공부방법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최저를 맞추고 논술로 대학에 당당히 합격한 지금, 국어로 높은 수능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현주 선생님과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조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정 지 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

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반년 조금 넘게 항상 앞자리에서 현장 들었던 여학생입니다 ㅎㅎ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모의고사 국어 등급 3등급 혹은 4등급이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 국어는 혼자 노력한다고 오르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쌤 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니 아침 9시부터 leet 등의 어려운 문제만 풀게 하셔서 적응도 안 되고 졸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나 싶고... 설상가상으로 김봉소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솔직히 정말 학원가기 싫었어요^^; 아침부터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고 처참한 점수를 보는게ㅠㅠㅠ 이렇게 3개월을 보냈지만 9평 점수가 오히려 떨어져 좌절했고 그만 다녀야하나 생각했지만 아침마다 일찍 간 게 너무 아까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현주쌤 강의의 장점은 글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며 국어 문제를 풀었지만 지문을 절반으로 나누고 읽으며 문제를 풀라고 하셨고 지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고 어떻게든 문제로 나온다고 하시는 수업을 들으며 국어 실력이 많이 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모의고사를 푼 직후에 푼 방법을 비교해본 덕에 글을 읽는 방식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또한 문학을 글을 읽는 방법이 없다고 느꼈었는데 수업시간에 적어주시는 작가에 대한 특징이나 요약들을 공부하기 싫을 때 머리 식히는 겸 꾸준히 읽다보니 나중에는 문학 흔들렸던 부분들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만년 국어 3,4등급이 수능1등급을 받게 되니까 이 글 쓰는 것도 선물같네요 현주쌤 덕분입니다ㅠㅠㅠ 선생님이 종강 날 주신 에코백도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꼭 찾아갈게요 !♡

김 서 현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치룬 고3입니다!

오늘은 문법의 끝 2018ver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후기를 알려드리려면 우선 그 당시 저의 상황에 대해서도 서술해드려야 할 것 같으니 수능 보기 전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평 낮은 2등급, 9평 낮은 3등급.

이런 성적이었었는데 이 중에서도 문제는 문법이었어요. 6평에서 2문제 9평에서 3문제를 문법만 틀려서 등급을 깎아 먹었으니... 문법 공부가 시급했죠. 당시 문법 공부는 수업시간 선생님이 해주신 내신수업이 전부였는데 뭔가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내 것이 안 되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시간 소요가 엄청 났고 아는 것들을 전부 동원해도 못 푸는 문제는 또 못 풀고.... 제가 개념은 한 번 내신 때 들렸으니 이젠 문제나 풀자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었어요...

그렇게 문법 개념 공부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할 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게 선배들의 조언들을 통해 문법의끝이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있단 이야기길 듣고, 책 후기도 찾아보고 9평 이후에 바로 구매를 하고 책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받고 제일 좋았던 부분은 책이 진짜 최근 기출 경향을 반영해서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중세국어 부분이 꼭 나오잖아요 요즘 기출에서, 근데 그런 개념이 진짜 정리가 잘 되어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올려드리고 싶은데 기숙사에서 짐을 급하게 옮기면서 책을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개념 정리가 진짜 잘 되어 있는데 책 목차만 보셔도 분류가 잘 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 안에서의 개념도 진짜 좋았어요. 이건 진짜 이 책으로 공부를 하셔야 체감이 들어요... 내가 진짜 좋은 책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중간 중간 선생님 캐리커처가 나와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문구도 날려주시는데 그것도 공부의 틀을 잡는데 되게 도움이 됐고 선생님의 응원문구는 저에게 되게 힘이 되었어요!!ㅠㅠ 멘탈적으로도 많이 공부하면서 편안하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책 안에서 가지치기 형식의 분류표가 있어요! 이 분류표가 책 안에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 내가 무엇이 어디를 공부하는 건가를 아는지에 대한 분류와 이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문법의 끝은 이게 딱 잘 눈으로 보기에 잘 나와 있어서 좋았고,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분류표를 한 번 씩 봐주셨으면 합니다.

기출 문제도 정리 다 되어있어요 다른 기출문제집을 굳이 풀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혹시 평가원 기출 문제를 실전 모의고사처럼 푸실 분들은 문제가 스포가 된다 싶으면 교육청만 따로 푸셔도 되고, 아님 아예 기출을 나중에 풀자는



마음으로 개념만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그리고 책 안의 여백?이 많았어요! 단권화 책으로 적합한 책이라 이 점은 굉장히 좋았는데 책 안에 레이아웃? 이라고 해야되나요.. 빙산이 컨셉인 듯 했는데 그게 울퉁불퉁해서 조금 TTT 굳이 울퉁불퉁해야 했다... 이걸 줄이면 좀 더 여백 확보가 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충분히 여백 많은 책이니까... 이건 약간 단점?

제가 수험생 막바지 9월 모의고사를 끝나고 이 책을 접했는데 좀 더 일찍 이 책으로 공부하지 않은 게 너무너무 후회됐고 TTT영역 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국어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어요! 중간중간 선생님 응원 문구도 좋고 책이 주는 신뢰감이 진짜 좋았어요...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는구나! 나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수험생활에서의 부정적인 느낌, 특히 난이도가 부쩍 높아진 국어에 대한 불확신을 이 책을 통해 많이 해결했어요.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국어 전반에 대한 자신감으로 점차 커지더라고요...

제가 수험생활 끝자락에 이 책을 만난거라 막 정독 5회독 이런 식으로는 못 봤지만 정독 1번에 수능 전 일주일동안 가볍게 1회독 했습니다.... 책이 술술 넘어가서 진도도 빨리 나간 편이었어요... 저 되게 끈기 없거든요... 근데도 다 끝냈어요...

결국 저는 어떻게 됐냐면은....

수능시험지 받고 국어를 푸는데 문법 부분이 정말 빨리 풀렸어요. 이번 수능이 문법이 쉬웠던 편이긴 했지만 그 덕에 자신감 많이 갖고 국어를 끝까지 풀었고...

제 성적은.. 94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문학이랑 문학에서 한 개씩 나갔고...

물론 백점을 받은 거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 비하면 엄청 훌륭한 점수를 받은 거는 아니지만... 오르비갓잡분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TTT 고3 1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능 문법이 쉽게 나온 덕도 있지만 내가 문법은 안 틀릴 것 같다는 자신감, 국어를 잘 볼 것 같다는 느낌이 저의 1등급을 만들었고 문법의 끝이 거기에 큰 공을 세웠다고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제게 잘 맞았던 것 만큼 다른 수험생분들도 잘 맞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문법에 대해 불안함이 많은 분들 문법의 끝으로 한 번 공부해보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 저도 수능을 치른 선배들 3분의 추천으로 이 책을 만났고 이 책에 매우 만족했어요!

이 해 원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국어 학원을 다니지 않고 공부한 학생입니다. 문학과 비문학은 원래 감이 있어 얼추 성적이 나왔지만 문법만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2 때 치른 모의고사에서 다른 문제를 다 맞은 채 문법만을 모조리 틀린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수능에서 국어 100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는 ‘문법의 끝’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구태여 외우는 게 싫었고, 규칙마다 예외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학교 수업을 듣고 복습하고 인강을 들어봐도 음운부터 시작해 문장으로 이어지는 구성 체계는 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제야 좀 감이 잡히네, 라는 생각이 들면 한 달 후 다시 새하얗고요. 내신을 공부할 때는 교과서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의 예시들을 모두 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겨우 성적을 얻었지만 모의고사에선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3이 되어 EBS 연계 교재의 문법 파트를 다 외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쯤 오르비에서 ‘문법의 끝’이라는 교재의 추천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문법이 다급했던 저는 바로 구매했습니다.

처음 교재를 펼쳐 문법 개념 구조도와 개념 설명을 훑어보는 순간 눈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정리되지 않았던 개념들이 폴더로 분류되는 느낌. 각 챕터마다 해당 개념이 구조도의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명시되어 있는 것도 체계적인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교재를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2회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선생님의 캐리커처에 덧붙은 열공 Tip!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해한다고 믿고 넘어갔던 팁들이 제대로 이해되면서 나도 몰랐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저는 딱딱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문법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쓰는 언어의 규칙인 만큼 우리가 쓰기 편리한 대로 만들어지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 문법을 암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문법에는 단순 암기가 필요한 지점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선생님의 말장난 같은 암기법들도 도움이 되었습니다ㅋㅋ)

문법이 무조건 싫었던 제가 문법이라는 과목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현장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쓰셨지만 현역 학생이 홀로 독학하기에도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아꼈고, 아끼고, 내년 후배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변 기 범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18학번

저는 2018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정시로 서강대학교에 입학한 변기범입니다. 처음 유현주 선생님을 알게 된 건 오르비라는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였습니다. 당시,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던 저는 6월 모의고사를 비롯한 수차례의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문학 특히, 문법 영역에서 취약점을 드러냈고 국어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르비라는 사이트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며 성적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유현주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제 주변의 많은 수험생들의 생각과 같이 국어는 강의를 통해 성적을 올리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유현주 선생님의 강의를 신청하게 된 것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현주 선생님과 문법의 끝 교재의 큰 도움으로 2018년도 수능에서 국어 영역 만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른 과목들에서의 실수를 만회하며 서강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수업을 진행하시고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신 유현주 선생님은 제가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이라는 큰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유현주 선생님이 쓰신 문법의 끝이라는 책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문법 교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자세하고 쉽게 국어 문법을 설명하고 있어 가장 취약했던 문법 영역의 문제들을 모두 맞출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문법의 끝을 보고 계시는 혹은 볼 예정이신 모든 수험생분들이 유현주 선생님과 이 책의 도움을 받아 2019학년도 수능에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7 문법의 끝으로 공부한

'2017 수능 1등급 검토진' 의 교재 후기

김 준 태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과

올해 6월 대수능 모의평가에서 평가원은 문법 영역에서 수험생들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저는 그런 펀치를 제대로 맞은 학생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관련 용례를 보기로 주는 기존의 문법 문제들에 익숙해 있던 저는 1교시부터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시간이 부족해 낮은 점수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동안 돌려막기 식으로 해왔던 저의 문법 걸출기식 공부법을 탈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때 선택했던 책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문법의 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량의 방대함에 기가 죽었지만 기초부터 탄탄히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개념들을 고쳐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은 습득하면서 책 중간중간에 있는 유현주 선생님의 팁,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암기해나가며 저만의 문법 사전을 제 머리 속에 만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9월 모의평가와 대망의 수능에서는 모든 문법 문제들을 맞힐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하여 독서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수능에서는 국어 100점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문법의 끝을 활용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암기'와 '문법노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문법의 방대한 분량에 암기는 꿈도 꾸지 못했으나, 최소한의 암기 없이는 문법 영역은 물론, 문학이나 독서 영역에서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요즘 수능 국어 시험의 추세이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있는 문법 개념들은 암기하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까지 암기를 해야 하느냐'인데 그에 대한 답은 이 책, 문법의 끝이 제시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노트입니다. 이 책에는 문법에 관한 많은 기출 문항들이 실려 있습니다. 문제를 맞고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맞든 틀리든, 모든 선택지들에 관해 피드백(관련 문법 개념 정리)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자주 잊어버리는 문법 개념들, 혹은 책에서 유현주 선생님이 강조해 놓으신 부분들을 정리하여 문법노트를 만들었던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 이어서 책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책으로 다가올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을 만들어주신 유현주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 준 용 |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2017 대수능 국어영역 1등급을 받은 최준용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문법 공부는 다른 독학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6학년도 수능까지와는 달리 17학년도 수능부터는 세부적인 문법 내용에 대한 학습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문법의 끝"을 구매하고, 유현주 선생님의 현장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타 교재와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매우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타 교재는 추가적인 학습 콘텐츠를 강제 구매하게 권유하는 반면, 문법의 끝은 독학 교재로써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헛갈리는 개념인 "사잇소리" 나 "합성어 파생어" 등등에서 충분한 예시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료로 제공해주신 3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의 덕분에 책을 학습하는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17년도부터는 문법 영역의 암기와 이해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의 끝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17 대수능에서 5분 만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었고 이러한 시간단축 덕분에 문학과 비문학 영역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4년동안 수험생활을 하며 처음 국어 1등급을 받은 건 "문법의 끝" 과 유현주 선생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황 두 현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이제 문법을 외우지 않고 <보기>만 읽고 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문법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비해 지문양이 많아진 요즘 수능 국어 트렌드에서 문법 공부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문법 공부는 뒤에 비문학과 문학 지문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늘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득점을 원한다면 이제는 문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문법의 끝은 시중에 있는 문법 교재 중에 제일 가장 심세합니다. 책의 구성이 내용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잘 짜여있어서 문법을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읽어서 익숙하게 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하는데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책이 항목별로 잘 정리되어있어서 나눠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단원 끝에 있는 스스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칸이 있어 복습할 때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단원별로 기출문제가 실려 있어 따로 문제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문법의 끝은 하루 30분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분정도 복습한 후 충분히 내용을 음미하고 이해하면서 읽으면서 하세요. 어느새 문법을 외우지 않았는데도 머리 속에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성 민 |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7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된 재수생입니다.

사실 저는 고3때까진 문법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이전까진 문법을 틀러본 적이 없기에 '그냥 보기보고 풀면 다 맞추지 않나?'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수능장에 간 결과 문법에서 6점이나 나가고 3등급이라는 안 좋은 결과를 받았죠. 그 이후 자만했음을 깨닫고 유명하다는 문법인강을 구매해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2017 6월 모의평가에서도 문법을 세 문제나 틀리고 3등급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심각성을 느끼고 문법공부를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문법의 끝 교재를 접하게 되었는데, 문법의 끝 교재를 공부하면서 제 공부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강을 들으면서 문법 용어를 공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많은 용례들, 중요단어들을 생각없이 쪽 외웠었는데, 그 결과 시험장에 들어서면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개념들을 서로 혼동해 잘못 암기하고 문제를 틀리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러나 문법의 끝을 공부하면서 공부할 때 범주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법 개념, 용어들을 공부 할 때 오랫동안 기억을 하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거지?' '이것을 지금 왜 외워야 하는거지?' 등의 의문을 끊임없이 갖고 외울 필요가 있는데, 문법의 끝은 '문법 개념 구조도'와 새로운 설명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정리표로 공부하고 있는 범주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여러 문법 파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공부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면서 용어와 사례를 달달 외울 때보다 개념을 혼동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기억도 더 오래 할 수 있게 해주는 차별화된 장점이 있었습니다.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 또한 단순 암기가 아닌 선생님이 과외하는 듯한 말투로 중간중간 깨알 열공 팁들과 함께 원리를 이해시켜 주는 서술로 되어있어, 단어를 딱 봤을 때 적용된 문법 사항들을 술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원리이해기반의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어 그 결과 2017 어려웠던 수능에서 96점 백분위 99를 쟁취 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국어 45문제 중에서 문법은 5문제밖에 되지 않아 어찌보면 사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날 1교시의 압박감은 상당하며 초반의 문법 문제에서부터 시원하게 넘기지 못하고 막힐시 정신적으로 타격이 상당히 크고 낭비한 시간만큼 다른 파트를 푸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법은 수능국어에서 5문제 그이상의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노력한만큼 단기간에 실력상승이 가능한 파트는 문법뿐이며, 평가원이 2016,2017 수능에서도 보여줬듯이 문법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져 이제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게 집요하게 문제를 출제하는데 문법의 끝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독학책 아닐까 싶습니다. 2018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책입니다^^.



하 성 협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제가 이 교재로 공부하여 후기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재가 특히 좋았던 이유 첫 번째는 교재 내용이 '꼼꼼'하다는 것 입니다. 수능 문법은 쉽게 공부하자면 수능에서 나오는 '킬러'문제에 대비할 수 없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공부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수능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법의 끝은 정말 수능에 맞게 꼼꼼합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꼼꼼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문법이 무척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법이 약점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법책으로 공부를 해보았고, 수많은 인강을 들어보았으나, 가장 큰 문제는 문법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음운론을 시작하지 않고 9품사부터 시작하는 문법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문법의 끝'은 가장 중요한 '음운론'부터 '음운 법칙'부분까지 너무나도 매끄럽게 진행되어 문법을 공부하면서도 자연스럽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문법이 그렇게 적용된 이유를 밝힌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시켜주는 문법책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점은 '비음화'가 적용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주셨던 부분인데, 그 덕에 수많은 문법 문제들을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품사', '문장성분'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신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문법의 끝 덕에 수능 문법을 다 맞을 수 있었고, 정말 어려운 외부 사설문제 또한 늘 다 맞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능 전반적인 부분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있었고, 백분위 98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수능 국어 속에서 늘 안정감을 주고 문법만큼에서는 쉽도록 도와준 문법의 끝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민 준 |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히 저의 소개를 하자면 17 학년도 수능국어 백분위 100을 받은 이민준 이라고 합니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국어 공부법에 대해 묻곤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전 항상 '기본부터 해야한다'고 대답합니다. 국어에서 기본이라는 것은 바로 문법과 어휘입니다. 물론 수능에서 문법 문제는 5문제 또는 6문제뿐이지만 비문학, 심지어 문학 지문의 독해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문법과 어휘입니다. 정확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독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법의 중요성이 느껴지신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가 또다시 궁금하실 것입니다. 전 '문법의 끝' 교재면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제목 그대로 문법을 한번에 끝내주는 교재입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양한 적용문제를 풀다보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외워질 것이고 그럼 여러분은 국어공부의 기본을 탄탄히 쌓게 됩니다. 물론 각자에게 맞는 교재가 있겠지만 제가 본 책들 중에 가장 효율적이었던 이 교재를 여러분께 추천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흥 재 | 서울시립대 영어영문학과

문법의 끝을 풀고 수능에서 국어 100점을 받은 재수생입니다. 사정상 6월 모의고사를 보지 못한 채 7월부터 수능 준비를 시작한다라, 많은 개념을 잊고 올해 개정된 문법문제 유형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역 때부터 국어는 저의 자신감이었고 자존심이었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결과는 역대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끝나고 시험지를 분석해보니 문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고 심지어 세 문제나 틀렸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 일주일간 여러 정보를 모으며 전략을 구성한 뒤 서점에서 산 책 중 하나가 바로 이 문법의 끝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시기인지만, 제대로 한번 볼 수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무작정 문제를 풀거나 통으로 암기했기 때문에 [문법공부]하면 머리부터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능문법은 생각보다 방대한 양을 담고 있고, 그 때문에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 어떤 개념은 기출이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수험생 혼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다른 문법서처럼 개념만 딱딱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고, 마치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주신 것을 그대로 책에 옮겨온 것처럼 체계적이면서도 읽기 편하게 정리가 되어있었고 중요한 부분과 예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 출제가 많이 된 부분엔 적절히 표시가 되어있고, 최근 기출에서의 출제여부나 개념끼리의 연결고리도 알아보기 쉬웠습니다. 혼자서 핵심정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독학이 가능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큰 시간이 할애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으로 인해 선 이해, 후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물 흐르듯 개념을 읽다 보니 따로 암기하려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달여 간의 기간 동안 저는 이 책을 3회독 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로 최종정리를 끝내자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수능 문법은 비문학이나 문학에 비해 문제 양이 적지만 매우 어렵고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지요. 저는 수능 날 문법문제에서 5분 이상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분배가 정말 중요해진 요즘 국어에서, 문법의 끝으로 공부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 윤 석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현역때 국어a형 94점 맞고 재수한 학생입니다. 일단 현역 때는 6,9 월 모두 1등급을 맞았지만 항상 문법 부분과 문학 부분에서 확실하지 않고 힘겹게 문제가 풀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결과 수능에서 2등급을 받았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역 때는 문법의 끝이라는 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른 개념서를 사다가 봤지만 뭐가 중요하고 안중요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능으로 갈수록 개념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지고 문제 푸는 감만 쌓여 갔고 제 스스로도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올해 재수를 하면서 문법책은 문법의 끝 한권 풀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며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별표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왜 중요한지 설명까지 되어있어서 개념 공부를 꼼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문법 영역을 빠른 시간 안에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풀고 100점을 맞았습니다.

문법의 끝을 써주신 유현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이 책으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 모두 수능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정 훈 |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

안녕하세요. 저는 2017수능 원점수 93점 백분위 97을 받아 수능에서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아본 반수생입니다.

반수생이라 6월 모의고사는 보지 못하고 9월 모의고사는 국어에서 3등급이 나왔습니다. 특히 9월 모의고사에서는 예전 기출문제들과 달리 문법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다고 느껴 시간을 많이 빼앗겼는데 그 영향으로 비문학과 문학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결국 시험지를 시간 안에 다 풀지 못하였습니다. 시간 안에 다 풀지 못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위기감을 느꼈고, 가장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문법 부분을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문법책을 찾아봤습니다.

문법책을 찾아보면서 문법의 끝이라는 책을 처음 보았는데 책이 너무 두꺼워 '과연 다 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책이 구조화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개념정리를 쉽게 할 수 있었고, 두꺼운 만큼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쓰여 있어서 사잇소리, 사이사웃 같은 헛갈리는 개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문법 기출 문제를 풀다 틀리면 문법의 끝으로 돌아와 다시 읽으며 헛갈리고 부족했던 개념들을 채우기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여 수능에서는 문법 부분에서 틀리지 않았고 시간도 절약한 덕분에 국어에서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유 정 | 서울교육대학교

문법의 끝과 선생님 강의로 문법을 정리한 이후로 문법에서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신유형 문법 문제가 나온다, 문법이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무성해도 문법의 끝과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문법의 끝의 가장 큰 장점은 문법 구조도입니다. 문법 구조도를 통해 전체 개요를 파악한 다음, 세부적으로 필요한 문법 사항들을 공부하는 것이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간에 유현주 선생님 그림이 나와서 짚어야 할 중요 포인트들이나 더 알아보아야 할 설명들 등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 이해가 잘 됩니다. 문법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부터 문법을 이미 공부한 학생 전부 공부해도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은 처음부터 뼈대를 공부하고 살을 붙여나가기에 공부에 도움이 되고, 이미 공부한 학생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2016 문법의 끝으로 공부한

'2016 수능 1등급 검토진' 의 교재 후기

황 현 성 | 건양대학교 의학과 2016학번

안녕하세요. 16학년도에 『문법의 끝』 으로 문법 공부를 끝낸 학생입니다. 저는 2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수능 국어에 대한 대부분의 개념들을 잊고 작년에 다시 수능 준비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2010~2012 수능 때는 문법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수능 국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문법이 많이 중요해졌죠.

학창 시절, 문법이라면 죽도록 싫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개념 하나 하나가 필연적인 이유가 없이 단순 지식으로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서점에서 우연히 『문법의 끝』 이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상위권들 중,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유현주 선생님의 책인 점도 있었지만 독학을 하는 저로서는 독학으로도 충분히 공부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는 이 책이 저한테 가장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원 시작 전 큰 틀을 제시함으로써 숲을 볼 수 있게 만든 구조, 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선생님의 친절한 주석을 통해 과외 받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 다닐 형편이 안 되었던 저에게는 친절한 주석이 너무나도 도움이 되었답니다. 또한 단원 마무리 부분에 있는 최근 10여년 치의 기출 문제를 통해 배웠던 개념을 복습하는 부분은 학습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법의 끝』 을 7회독을 했습니다. 7회독과 함께 저만의 문법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고 결국 수능 날 문법 문제가 긴장 탓에 다소 난해했었지만 일 년간 열심히 학습했던 자신을 믿고 문제를 풀어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문법의 끝』 을 7회독 하면서 3회독까지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문제를 풀고 반복했습니다. 그 후에 4회독, 5회독 하면서 중요한 개념과 문제 풀 때 헛갈리는 문제들과 선택지를 정리하면서 저만의 문법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으며 1년 간 치르는 수많은 사설모의고사와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오답과 부족한 개념들을 6회독에서 채우면서 완전한 문법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수능 바로 직전 달인 10월 달에 문법을 마지막으로 총정리 하면서 7회독을 완성했습니다.

비록 저는 7회독 밖에 못했지만 수험생 여러분은 10회독 정도 하시면 확실한 문법 지식과 함께 수능 날 문법 영역은 다 맞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문법의 끝』 과 함께 1년 열심히 준비하셔서 수능의 성패를 가르는 1교시 국어 영역을 안정적으로 잡고 가셨으면 합니다.

17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국 진 희 | 가천대학교 한의예과 2016학번

201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던 때에는 문법은 공부하지 않고 보기를 보고 푸는 문제라고 여겼기에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법 문제를 틀렸고, 반수를 시작하면서 문법만큼은 확실히 잡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이 책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목차 부분이 단순한 목차가 아니라 문법의 개념도처럼 구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제가 왜 15학년도 수능에서 문법을 틀렸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국어 문법의 개념이 마인드맵으로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음 법칙, 사잇소리 현상과 같은 머릿속에 똥똥 떠다니던 개념들이 음운의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한다는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교재를 꼼꼼히 읽고, 교재에 수록된 기출 문제를 풀 때 적용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문법 능력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를 하실 때 개념 옆에 표시되어있는 중요도를 체크하시면 중요한 개념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의 끝'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2017년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김 동 휘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2016학번

2016 수능을 준비하며 국어 문법 부분 공부를 문법의 끝만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2015 수능 국어B형 88점 2등급에서 2016 수능 국어B형 100점 1등급으로 점수 상승을 가능하게 해준 1등 공신이 문법의 끝 교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앞부분인 문법영역은 뒤의 독서와 문학영역을 풀어나갈 때의 정신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책을 통한 문법 공부를 통해 자신감이 생긴 저는 올해 수능국어에서 흔들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단원을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으로 분류해놓은 것이 머릿속의 문법 지식을 체계화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음운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해놓은 부분이 아직도 참 인상적이네요!

예를 들어 '굳이'를 발음할 때 [구디]로 발음하는 것보다 [구기]로 발음하는 것이 혀의 이동이 적어 (ㄱ발음과 ㅣ발음의 위치가 같아) 편리하고, '기'이 소리 나는 연구개에 가까운 구개음인 '지'으로 소리 내는 것이라는 효율적이기에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을 통해 언어생활에서 발음의 효율성을 위해 일어나는 다른 많은 현상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보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언어 현상들을 해석, 분석하는 능력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구개음화 현상을 이해하고 나서 김치의 이름이 담치 짐채 짐치 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유를 혼자서 파악 할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가 각 단원에 맞게 수록되어 있어서 지식을 활용하는 훈련도 되었습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하여 좋은 점수를 받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책을 추천 합니다.

김 지 혜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2016학번

저는 올해 삼수를 했습니다. 현역 때부터 가장 못했던 과목이 국어였기 때문에 국어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14수능이었던 현역 때는 2등급, 15수능이었던 재수 때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국어 때문에 삼수를 하며 제가 한 결심은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자!'였습니다. 문법에 한해 말하자면 요즘처럼 어려운 국어시험에서는, 문법파트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수능을 보기 전까지 사실 전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왔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14 수능에서 문법 파트를 다 맞은 경험은 저로 하여금 '문법은 거저 주는 파트다.' 하는 착각을 하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 하루에 5문제씩 푸는 것과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 연계교재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망의 15 수능! 평소 풀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난 저는 문법 파트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제유형에 당황했고, 정확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난이도 상승이 저에게 매우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 문법파트에서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리고 시험자세를 말아먹었죠... 그래서 삼수를 시작하며 문법을 확실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법의 끝'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행운이었던지 몰라요!

이 책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잘 범주화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범주화는 우리로 하여금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게 해주는 물론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책 맨 앞을 보면 문법 개념 구조도가 있는데요, 전 이 부분을 보고 책을 사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구조도를 보면 전체 문법내용이 범주에 따라 정리되어 있어 공부하는 중에 수시로 보면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뭔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감도 잡을 수 있고, 또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다가 헛갈리거나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그 페이지를 찾아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념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요.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생긴다 싶을 때!! 책 옆을 보세요. 선생님의 열공 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열공 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강조 되어있기도 하구요.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덧붙여 선생님의 응원의 메시지!!! 힘든 삼수 생활 중에 선생님이 남겨주신 응원의 메시지는 참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는 개념만 정리되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출문제도 수록되어있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푸니 개념을 적용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법의 끝으로 문법 공부를 한 결과, 16수능에서는 문법파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문법에서 전혀 틀리지 않은 덕분에 처음으로 수능에서 국어가 1등급이 나왔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원 영 호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016학번

저는 이번이 세 번째로 응시한 수능입니다. 작년에 국어를 3등급을 맞고 나서, 제 문제집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14,15 수능 때 제게 가장 난해했던 부분은 문법이었습니다. [보기]가 주어진다 해도 '처음 보는 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때려 맞추는 식으로 풀게 되고 심지어 [보기]가 주어지지 않은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에는 '아. 이거 못 풀면 어찌지' 하는 마음에 문제를 읽기가 무서웠습니다. 근거 없이 감으로 문제를 풀게 되니 한 두문제로 대학이 갈리는 수능에서는 확실히 답을 구하지 못한 문제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문법에 자신감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 때, 제가 선택한 것이 문법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개념이 정리된 문법교재 1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기출문제로 최대한 평가원의 스타일을 익힌다면 문법 문제가 어려울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된 문법의 끝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법 내용이 총망라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도 개념에 맞게 수록 되어있어서 개념과 기출 모두 잡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법의 끝의 가장 큰 장점은 책에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 표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개념을 꼼꼼히 봤지만 중요한 부분에 더욱 집중하여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책 맨 앞쪽에 있는 목차를 통해 항상 제가 어떤 큰 줄기를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해가면서 막연히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제 문법지식이 단단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감으로 문법문제를 푸는 게 정말 싫었기 때문에 문법 개념을 질리도록 봤습니다. 문법의 끝으로 문법 개념을 계속 봤는데 개념의 핵심은 잘 잡혀있고 군더더기가 없어서 N회독을 할수록 오히려 시간이 절약됐습니다. 유명 강사의 문법 강의를 듣고 온갖 사설, 교육청의 문법문제를 푸는 것보다 개념서 한 권을 통하여 문법 개념에 익숙해지니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부담도 덜었습니다. 제가 14, 15 수능 때는 항상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16 수능 때는 비문학을 풀기 전에 문법부분에서 못 풀고 넘어간 부분이 없고 감으로 풀기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마음도 편하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수능은 시간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만큼은 단권화된 책으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단권화된 책으로 문법의 끝을 선택했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정 태 희 |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2016학번

2학년 때까지는 별다른 국어 문법을 준비하지 않다가, 3학년에 올라오면서 자꾸 문법 분야에서 틀려서 국어 문법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문법에서는 개념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꼼꼼하게 정리된 책을 찾던 중, 문법의 끝을 추천 받아서 이 책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법은 혼자 공부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해서 듣성듣성 하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문법의 끝'에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개념들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 주신 덕에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주석으로 달려 있는 팁이나 보충 설명들로 세부적인 내용이나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부분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문법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석이 구어체로 옆에서 설명해 주듯이 쓰여 있어서 심화된 내용을 수월하게 읽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문이나 기출 문제도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문법의 끝으로 공부하면서 익힌 개념을 적용하는 것까지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록된 문제를 개념 공부할 때 풀지 않고, 나중에 국어 기출을 문제집으로 통으로 풀 때 문법 분야에서 틀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문법의 끝에 정리된 해당 개념을 복습하고 나서 풀어 보는 방식으로 공부했는데, 이렇게 문법의 끝을 국어 문법 기본서로 활용하면서 시간도 많이 절약하고 개념도 꼼꼼히 다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모의고사나 시험을 보기 전에는 문법 공부가 제일 효율적인 듯해서 스스로 핵심정리를 했던 페이지를 꼭 훑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문법의 끝으로 공부하면서 문법 분야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 주 환 | 경희대 물리학과 2016학번

국어 a형 응시 독학 재수생이고, 다 맞은 분들에 비하면 미진합니다만 96점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입니다. 이번 독학재수 중에서도 6,9월은 1등급이 아니었으나 수능에서는 감사하게도 문법 덕에 1이 나왔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법의 끝이 맞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이 지금은 이해가 되네요. 개념이 도출된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결국에는 문법 두 문제를 고민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암기한 정의와 과정으로 선택을 하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문법이라면 치를 떨었고, 고3 내내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근거 없는 감에 의존한 답 선택은 평가원 시험 내내 등급을 떨어뜨리는 원인 이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언제나 문법을 파고 질문하고 해도 문제를 보면 틀리거나 근거를 못 찾고 까먹는 저를 보면 너무나도 참담 했었죠. 작년 수능 화자문에서 탈탈 털리고 나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 독하게 독학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해도 안 된 문법이 한이라 ebs를 집어던지고 결국 문법 전문 교재를 구매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문법의 끝' 이었습니다.

5월 구입을 해서 6월 모평 3일 전까지 계획을 짜고 문법의 끝을 공부했습니다. (재미없는 것은) 기억력이 오래 가지 못해서 '시험 전에 반드시 훑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일단 몰라도 그날 문법 공부 한 것을 정리하면서 따라갔고 또 9월 전에 한 번 더 반복하구요. 문법의 끝 교재에 여백이 굉장히 많아서 떠올리면서 다시 정리하기에 좋았습니다.

9월 이후에는 자신 없고 고3 때에도 헤매었던 부분들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정의를 아예 암기하고, 강의와 교재에 기록된 예시들을 적어서 암기한 정의에 맞추어 머릿속으로 뜯어서 다시 조립해보고 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책에 다 있는 기출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하구요. 수능 하루 전에는 기출을 뽑아서 문법 문제에 정의 적고 분석 까지 마쳤습니다.

문법의 끝의 장점이라면 수업으로 들어가 할 것을 책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문법을 해도 해도 안됐던 이유는 단편적으로 공부하고 정리와 근거 없이 암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용이 되지 않죠. 문법의 끝에서는 개념이 도출된 원리와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수업을 안 듣고도 쉬운 이해와 암기를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해 수능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김 지 성 | 중앙대 기계공학부 2016학번

고등학생 시절 국어 공부에 손을 놓다가 수능에서 크게 당하고는 다시 수능을 준비하면서 여러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접했습니다. 그 중 가장 치중한 부분은 문법이었습니다. 국어란 과목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타 강사의 국문법 강의를 들었지만, 궁금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기다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상반기에 강의를 듣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쌓아뒀던 문법체계가 점점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법 참고서를 사기로 마음먹던 중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이벤트를 통해 <문법의 끝>을 접했습니다. 덕분에 수능때까지의 문법에 대해서는 별 걱정 없이 끝냈습니다. <문법의 끝>의 장점은 단언컨대, '문법 개념 구조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이 궁금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거나 할까요, 세분화된 분류가 효율적인 문법 학습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책 전체를 달달 암기한다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부분을 신속하게 찾아 펼칠 수 있는 문법의 '바이블'같은 참고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문법의 끝>이 그 역할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머리 아프게 했던 '사이시옷 현상'과 '높임법'에 대해서는 정말 십 수번이 넘게 책을 펼치면서 시험장에 들어서기 전에 완벽히 정복했습니다.

책의 효율적 활용법을 알려드리자면, 국어 문법 기출교재와 함께 활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뒤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면 분명 다시 봐도 잘 모르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때, 해당 문제의 상황에서만 설명하는 단편적인 해설을 살피는 것보다는 <문법의 끝>을 먼저 펼쳐서 해당 문제가 다루는 문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 비슷한 다른 문제를 틀리는 것을 예방해 주었습니다.

2016학년도 국어 100점이 <문법의 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순 없지만, 적어도 시험장에서 문법문제를 풀 때의 정확함과 신속함은 <문법의 끝> 덕분이라고 자신합니다.



최 성 모 | 건국대학교 2014학번

2016수능에는 A형을 응시했습니다. 2013, 2014년엔 문법의 끝 교재를 알지 못했고 문법을 14 15수능 모두 1개씩 틀렸구요. 올해는 시험에서 반수생활동안 문법의 끝과 꼼꼼하게 공부해서 올해 국어영역 중 꽤나 까다로운 파트였다던 문법을 여유 있게 풀고 다 맞아서 96점 1등급 받은 반수생입니다. ^^

언어에서 국어로 바뀌고 나서 문법이란 것을 처음엔 막연히 암기해서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온 결과 모의평가에서는 운 좋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번의 수능에서는 문법부분에서 시간소요가 굉장히 심했고 문법의 영향을 받아 두 번의 국어시험 모두 2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은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 교재를 읽고 강의를 함께 활용하면서 문법을 풀어나갈 때 보기와 문제에 주어진 정보에 맞춰서 해석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론 문법의 답답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해결됐고 문법을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활용한 교재는 저 같은 경우 국어는 ebs는 따로 참고하지 않았고 선생님의 교재의 내용, 교재의 기출문제 그리고 혼자 다시 풀어본 기출문제들이고 이것들로 문법 풀이방법을 만들고 체화시켰는데요. 선생님이 강의 중에 강조하신 부분이나 문법의 끝 교재에서 주석으로 달아주신 열공tip에서는 ebs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나 혹시나 궁금해 하거나 애매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짚어주고 가셔서 따로 궁금한 점을 찾아볼 것이 거의 없었던 것이 장점인 교재였습니다.)

교재 회독 수는 강의와 함께 1회독 후 복습하여 2회독을 했고, 그 이후에는 따로 교재를 읽어보기보단 기출문제를 푸는 도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개념을 교재로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회독수를 늘렸습니다.(물론 이전에 문법을 따로 어느 정도 봤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볼 수 있다면 보는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의까지 포함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 순수 책 읽는 횟수만 해도 3번이 넘기 때문에 그 이후엔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부족한 부분만 확인해도 충분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재로 독학을 해도 부족함 없이 좋은 것 같고 강의를 참고한다면 그 해에 변화되어 주목해야 할 만한 파트까지도 챙겨갈 수 있어(물론 책이나 선생님이 이메일로 보내주신 자료에도 강조점이 들어있지만요^^;) 더욱 좋은 교재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교재를 고르는 데에 있어서 가장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 교재를 쓰신 분이 학생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이런 부분을 잘 해소해주는지 인데요. 문법의 끝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부분 해소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용하면서도 당연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되실 2017수능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도 도움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15 문법의 끝으로 공부한

'2015 수능 1등급 검토진' 의 교재 후기

서 승 연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15학번

많은 학생들처럼 저도 고3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이 바로 생소한 문법 파트였습니다. 그 때 저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신 것이 바로 유현주 선생님과 문법의 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문법의 끝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법을 1권에 정리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문법의 끝의 각 단원은 크게 단원의 내용 구조도, 문법 내용, 연습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원의 내용 구조도는 복잡한 문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구조화하였기에 이해를 크게 돕고 복습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문법 내용 부분은 쉽고 꼼꼼한 설명과 함께 문법별로 중요도가 그림과 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습문제 부분에는 지난 기출문제 중 해당 단원의 내용을 담은 문제들이 실려 있어서 공부한 문법이 실제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문법을 배울 때 유현주 선생님께서 문법은 한 번 잘 잡아놓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기초부터 문제풀이까지 담겨있는 문법의 끝은 1권으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모의고사 분석 등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부분을 복습하기 편리해서 수험생활 중 손이 가장 많이 갔던 책 중 하나인 문법의 끝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문법의 끝으로 공부하셔서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최 세 현 | 강릉원주대학교 치의예과 2015학번

안녕하세요 ^^ 15학년도에 문법의 끝으로 문법 공부를 했던 학생입니다. 14년에 이 책으로 열공하면서 서평을 쓰는 기회를 얻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항상 문법이라고 하면 아 그거 들어봤는데 뭐였지?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고 좋은 책을 찾던 중 문법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법의 끝은 정말 제목그대로 문법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너무 세세한거 아닌가 싶어도 세세한 덕분에 헛갈리는 것도 줄고 예문들을 보면서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념도를 보며 먼저 문법에 대한 큰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방학동안 문법을 다지고 14년도에 본 모의고사 중에는 문법을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마스터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시간과의 싸움인 고3동안 따로 단권화 할 필요도 없고 궁금할 때마다 사전처럼 뒤져볼 수 있는 책 덕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마스터하여 문법의 끝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제 경우는 일단 문법개념도라는 큰 틀을 암기하고 세세한 부분들을 암기하며 헛갈리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문법의 큰 틀을 모두 암기한 후 그 개념도를 직접 마인드맵 형식으로 그려본 뒤 제가 제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예문들은 암기를 더 쉽게 해주고 개념도는 큰 틀을 잡아 주기 때문에 책 속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개념도와 예문들이었습니다.

조 용 범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015학번

문법의 끝은 단권화하기에 최고의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수 준비 중 학원 수업과 작년 수능 대비해서 공부했던 것을 다시 준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법의 끝을 접하게 되었는데, 문법의 끝에서 교과과정과 2013 EBS 교재에 있는 모든 문법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법의 경우 정말 자주 빈출되는 주요 내용이 있고 알아두거나 한번쯤 접해두면 좋을만한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문법의 끝은 주요 문법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가 돼 있어서 주된 내용과 부수적 내용을 잘 구별할 수 있었고, 부수적 내용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문법에 대해 배경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법의 끝의 장점은 평가원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BS 교재 등 에서도 문법 기출문제는 접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모든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면 불안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문법의 끝은 비문학 언어지문과 문제 포함 7차 평가원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어서 수능 준비에 불안감을 한층 덜어주었습니다

여 혁 기 | [조선대학교 치의예과 2015학번](#)

문법의 끝은 학생들이 문법에 접근하기 가장 좋도록 노력하여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이 학생들에게 고난인 만큼 그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만드신 느낌이 물씬 난다는 것을 공부할수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계교재나 다른 책과 비교하여 특히 좋다고 느낀 부분은 문법 구조도로서 학생들이 국어문법의 위계질서를 한눈에 머리에 넣기 좋게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문법 교재들을 보았다고 자부하지만 그중 저에게 음운론이 정리되었다라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책은 문법의 끝뿐입니다.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은 적어도 음운론파트만이라도 꼭 보기를 권합니다.

이 지 수 |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2015학번](#)

저는 1교시 국어를 무조건 안정적으로 잡고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국어공부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국어 시험을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모의고사 일수록 뒷 과목 점수들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기출문제를 풀 때면 항상 문법 부분에서 약점이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문법 개념서를 충분히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법의 끝' 책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는 반수였기 때문에 국어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차곡차곡 공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또 어느 정도 기틀이 다져진 상태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문법의 끝은 교과서에 충실하면서 세세하게 인덱스가 붙여져 있다는 것과 짜임새가 구체적이며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책입니다. 저는 기출문제에서 약점이 발견된 분야를 목차에서 찾아 내용 공부하는 용도로 이 책을 활용하였고, 정확하고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는 개념들 덕분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모르는 곳을 짚어내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매번 첫 부분만 열심히 공부했던 다른 교재들과는 달리 구체화된 목차 구성 덕분에 끝까지 책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출문제 풀이 후 오개념을 정확하게 골라내서 올바른 개념을 다시 넣는데 가장 좋은 교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이 동 현 |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예과 2015학번](#)

〈문법의 끝〉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잘 집는, 선생님의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 있는 교재로, 시중에 날림으로 제작되는 책들과는 달리 문법의 중심부를 겨냥해 수능에 최적화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과중한 학습을 요구하기보다는 필수불가결한 내용들 위주로 '문법의 끝'을 향해 소신 있게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노련한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신다면 분명 더 수월한 방법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하시는 선생님의 정성입니다. 학생들의 초점에 맞춘 간결한 개념, 날카로우면서도 친절한 해설 그리고 활발한 피드백을 통한 친근한 학습은 고된 수험 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단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재!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권태균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2015학번

2015학년도 수능대비 「문법의 끝」 과 유현주 선생님 강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2016학년도 수능대비 「문법의 끝」 을 검토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법의 끝」 이 다른 문법교재들과 차별화된 부분은, 2005학년도부터의 모든 평가원 모의평가 및 수능 문법 기출문제를 전부 수록하였다는 점입니다. 타 문법교재는 물론, 유형별 국어 기출문제집 중 이렇게까지 기출문제를 많이 수록한 문제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는 제가 수능을 준비한 2014년 기준으로, 2015년에 어떠한 교재가 나왔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개념별로 중요도가 표시되어 있어서 어느 개념이 중요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문법의 끝」 의 장점입니다. 국어과의 「독서와 문법Ⅰ」 과 「독서와 문법Ⅱ」 에서 다루는 문법 개념의 양이 매우 방대하데,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라면 공부할 양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문법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법의 끝」 에 개념별로 표시된 중요도를 확인해서 제일 중요한 별 다섯 개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으로 문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법의 끝」 은 국어 문법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신이 목표하던 것 이상의 결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은샘 |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015학번

먼저 "문법의 끝"을 통해 선생님께 문법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엔 검토진으로서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수능이 바뀌게 되면서 문법의 비중이 크게 늘고, 문법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들이 늘어나면서 문법은 국어영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문법은 감이 아닙니다. 문법은 제대로 한번만 공부해도 다 맞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바쁜 수험기간중 방대한 문법 파트를 전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 매년 그 부분이 시험문제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 개념과 기출문제가 체계적으로 섞인 이 교재와 강의를 선택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법의 끝"은 개념과 기출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효율적인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활용할 때에는 '문법 개념 구조도'를 꼭 인지하고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도는 문법 공부에 있어 이정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개념을 공부하기 전, 후에 공부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습득한 개념을 바로 기출문제에 적용하여 평가원이 문법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시험에 출제하는 지를 꼭 알기를 바랍니다.

윤주호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2015학번

문법의 끝을 만나기 전까지 전 문법의 문자도 몰랐었습니다. 개념도 부족했었고 문제 푸는 스킬도 부족해서 매번 모의고사를 치거나 문제를 풀때마다 깔끔하게 푸는 게 아니라 감에 의존하고 확실하게 답을 고르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또 여타 다른 책으로 공부했는데 정리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된 책이 문법의 끝이었습니다. 오르비를 보다가 새로운 문법책이 나와서 '일단 한번 사서 공부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책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기대감 없이 책을 구입했으나 그런데 기대를 비웃듯 책 안에 개념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기출 문제 또한 그 파트에 맞춰서 수록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또한 해설도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읽기 편하게 되어있고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혼자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그렇게 문법의 끝을 수능 끝날 때까지 정리하고 공부한 결과 수능에서 문법을 다 맞게 되었고 국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하는 대학교에도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법에 자신이 없으시거나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사셔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확실하게 문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허 동 범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2015학번

저는 이 교재가 다른 문법 교재보다 좋았던 이유는 설명이 자세하면서도 수능이란 테두리 안에 있고 문제들은 모두 기출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수능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개념이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있고 문법 개념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지 기억에 더 오래 남았던 것 같고 수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중요하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개념은 가볍게 공부할 수 있어서 공부하기도 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문법에 모든 개념들이 이 책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풀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부분은 책을 다시 펴서 그 개념을 다시 복습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리 스펙 트

언어영역이 국어영역으로 바뀐 지 어언 2016학년도 대수능이면 3년차입니다. 제일 큰 변화는 문법영역의 비중 증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언어영역이 있을 때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접했습니다. 언어영역 시절, 단독 문법 문제가 2문제인 시절에는 문법영역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어 영역이 되며 그 비중이 증가했고, 이에 더불어 문법 문제는 2014수능에 비해서 2015수능이 더 정교화 되고,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대수능이 어떻게 나오는 지는 아무도 현 시점에서는 모릅니다만, 대비를 해 두는 것과 안 해두는 것의 차이점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수능은 정규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를 합니다. 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전공과정수준의 문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부 고등학교 정규 과정 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하여 출제를 합니다. 다시 말해,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규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능력을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문법의 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여러 번 응시한 본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규 교과 과정에 대한 분석이 깔끔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문법의 기본 개념과, 교재에 제시된 분석사항을 낱알이 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개념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응용력 또한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교재에 제시된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또한 수능을 여러 번 경험한 필자마저 '현역 시절에 이걸 배웠다면 국어 문법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남길 정도로 국어 문법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문법의 끝"을 선택하여 꼼꼼하게 책을 학습한다면,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국어영역 중 문법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00점을 기원합니다.

2014 문법의 끝으로 공부한

'2014 수능 1등급 검토진' 의 교재 후기

유 범 정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14학번

우선 작년 『문법의 끝』 교재를 통해 문법 공부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검토진으로서 교재를 다시 접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 있는 어느 문법책보다도 풍부한 설명이 담겨 있어 책을 공부하며 문법 개념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에는 평가원, 교육청 출제의 여러 문제들이 실려 있어서 실전 문제풀이 감각까지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문법 이론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죠.

문법 파트 자체가 워낙 내용이 방대하며 또 어렵기도해서 저도 작년에 골머리를 앓았었습니다. 하지만 『문법의 끝』을 만났으로써 이러한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는 다른 시중 교재가 어렵게 설명하는 문법 사항까지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었었고, 애매한 사항에 대한 풍부한 설명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문법 단권화 책으로 사용했고 이외의 문법서는 보지 않으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문법 서적을 두루 보기보다는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 보면서 저는 문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시간 투자 대비 높은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6,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 문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시간들을 잘 활용해 6월, 9월, 수능 시험 모두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사용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도 문법을 확실히 끝내 수능 1등급이 되길 바랍니다. ^^

최 종 진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014학번

저는 현역시절 만년3등급 학생이었습니다. 쉬우나 어려우나 항상 변함없던 3등급의 점수가 저를 재수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기출을 풀 때 전에 풀었던 기억에 의지하여 근거 찾는 연습은커녕 답만 적고 해설 읽는 방법처럼 무의미한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현역으로 대학 간 친구 중에 저희 학교 특강오신 선생님이었던 유현주 선생님을 추천받아서 『문법의 끝』을 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책을 공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때부터 제가 생각해 온 것은 문법은 그냥 감이지, 그냥 그때그때 푸는 거지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법의 끝』을 접하고 나서 이러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풍부한 문법해설과 핵심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문법의 끝』은 2014수능을 대비하기에 딱 좋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법에 자신이 생기니 뒷부분의 독서, 문학도 자신감 있게 풀게 되었습니다.

『문법의 끝』은 단순히 문법지식만 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능 문법을 대비해야 하는지 척도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또, 올해 교재를 검토하며 느낀 점은 이전 교재는 자잘한 부분까지 너무 자세하게 다루신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능에서 묻고자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간추리고 중요도를 표시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작년에 공부할 땐 이 부분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모두 다 중요하게 봐야하는 건가하고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 A·B형으로 나누어지면서 다른 문법 기출문제 해설서에서 안 다루는 비문학 언어지문을 다룸으로써 문법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제를 편성한 부분도 아주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 바뀌면서 이전 문법 문제들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법이 어느 부분에서 출제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해설의 적절성도 지나칠 정도로 자세해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기본부터 심화까지 잡기에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 재 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계열 2014학번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능에서 문법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록 각 부분별로 비중은 다를지라도 문법 문제를 다 맞히기 위해서는 잘 출제되는 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훑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교육과정상의 모든 내용을 공부해볼 수 있게 구성되었으므로 특히 처음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개념을 잡는데 매우 유용하고 이미 공부해보았던 학생일지라도 다시 한 번 모든 부분을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교재입니다.

김 종 우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2014학번

일단 제가 좋았던 점은 교재에 수능에 정말로 필요한 내용만 담겨 있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자세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문법 규정을 함께 실어 놓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능에는 보통 문법규정과 예시를 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념만 달달 외운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7차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탑재해주신 덕분에 다른 문법 기출문제를 살 필요 없이 복습만 잘 해주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 해 경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4학번

다른 교재들을 보면, 이론중심교재인 경우에는 기출문제와 문제들이 빈약하고 기출문제 중심교재인 경우에는 관련학습 내용이 빈약해서 문제를 풀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문법의 끝』은 기출과 이론, 두 가지가 모두 알차고 충실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활용할 때에는 관련 단원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학습한 후에, 가장 먼저, 그 단원에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기출문제를 풀어서 그 단원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익히고, 그 다음 관련기출문제를 쭉쭉 풀어보면 그 단원에 대한 대비는 확실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 경 윤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014학번

시중에 잘 볼 수 없는 '문법 기출문제 모음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교재라서 국어 A형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거의 필수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강좌와 교재를 구입했는데, 실제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가독하기에 좋아 매우 만족했습니다.

임 성 원 | 경희대학교 약학과 2014학번

제가 문법을 처음 공부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과서나 시중의 교재들에서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없어 무작정 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법의 끝』은 이러한 가려운 질문들을 속 시원히 긁어 줄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단순히 외워서가 아닌 이해를 통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교재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활용했던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이 책을 볼 때에는 기본 개념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처음엔 문제들을 풀되 책에 답을 체크하지 말고 틀린 문제에만 틀렸다는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책을 볼 땐 책에다 문제를 풀며 오답인 선지의 오답인 근거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헛갈리는 개념이나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는 따로 표시를 해두신 다음 모의고사와 같은 시험 전날 내가 틀렸던 문제와 표시를 해둔 개념부분만 따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 성 원 |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2014학번

사실 문·이과 공통으로 국어라는 과목은 특히 그 중에서도 문법이라는 과목은 수험생 입장에서 참 애매합니다. 많은 공부시간을 투자해서 하자니 과연 이게 수능점수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안하자니 찝찝하고... 이런 고민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이 『문법의 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법의 끝』은 정확하게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만을 빠짐없이 정리해놨고 또한 개념들 바로 옆에 수능에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들 수 있는 의문들(“이 개념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얼마나?’와 같은 문제)을 해소시켜주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개념 공부하실 때 무작정하지 마시고 시험에 머가 나왔는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나와 있는 작은 귀퉁이도 빠뜨리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뒷부분에서 문제를 푸실 때에도 한 문제 한 문제 전부 기출문제들이니 꼼꼼하게 수능시험이라 생각하고 시험장에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풀 것인지 생각하면서 풀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설들은 필요한 부분들만 또한 빠져서는 안 되는 포인트들만 딱 집어서 구성 되어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설의 사고방식대로 풀었는지를 비교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평이든 수능이든 시험장에서 문법 푸실 때는 자신감을 갖고 맘 졸이지 않고 맘 편히 풀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민 호 | 경북_대영고등학교 교사

2013년 한 해 대영고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업한 교재를 직접 검토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내용 구성과 수준에 맞는 개념 설명이 함께 되어 있어, 학생들의 문법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 힘내십시오.

엄 수 현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2014학번

이 용 주 | 원광대학교 치의예과 2014학번